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2 월 12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2월 12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란상

"미황사 편지" (시, 도종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내가 나에게" (시, 이해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33-36

화두: "원하는 내가 되는데 있어서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아무래도 나는" (시, 이해인)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가시나무" (노래, 하덕규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미항사 편지

집 나온 지 아흐레가 되었습니다
새벽예불을 마칠 때가 되어서야
소쩍새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삼경에서 새벽까지 우는 밤새도
풀리지 않는 번뇌가 있는 걸까요
동쪽 봉우리 위에 뜬 북두칠성이
바다 쪽으로 발을 뻗을 때까지 뒤척이는 별들은
무슨 고뇌를 안고 골똘히 밤을 지새는 걸까요

금강스님은 동백나무를 보며
그늘에서 자라는 동백은 사월이 갈 때까지도
붉게 핀다 하셨지요
빛을 빼앗기고 역센 참나무 동치에 시달리며
자라는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는 치열한 정신이
뜨겁고 고운 꽃을 오래 피우는 거겠지요

그러나 저는 시련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소멸과 빛에 대해 말하려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빛의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일과 같은 굶기로 고인
번뇌의 역센 동아줄에 몸이 묶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순과 싸워 이긴 날들의 업적과
똑같은 크기로 쌓이는 이 업은 또 어이해야 합니까

그물과 나와 세상이 함께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왔습니다 그러나
세월 흘러도 핏자국은 왜 지워지지 않는 겁니까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이렇게 많은 산을 넘어왔는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지 않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달마산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 숲과 나무들은 온종일
바람에 시달릴 것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허리가 휘기도 하고
나 같은 나무들은 이파리를 매단 관절 마디마디가
바늘로 찌를 듯이 아플 것입니다

언제쯤 무명의 밤이 지나고
적멸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까요
새도 달마산도 별도 사람도 맑고 고요해져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될까요
그대 먼저 길을 찾아가시면
부디 발자국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그대 발에 밟혔다 누운 풀잎을 흔들며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버드나무 씨앗처럼 가벼워져서
골짜기 물처럼 알몸으로 투명해져서

(시, 도종환 - 낭독: 란상)

한 마음 한 노래 (시)

내가 나에게

오늘은 오랜만에
내가 나에게
푸른 엽서를 쓴다

어서 일어나
섬들이 많은
바다로 가자고

파도 아래 숨쉬는
고요한 깊이
고요한 차가움이
마침내는 따뜻하게 건네오는
하나의 노래를 듣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이젠
사랑할 준비가 되었냐고
만날 적마다 눈빛으로
내게 묻는 갈매기에게
오늘은 이렇게 말해야지

파도를 보면
자꾸 기침이 나온다고
수평선을 향하여
일어서는 희망이
나를 자꾸 재촉해서
숨이 차다고 -

(시, 이해인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4,33-36

화두: "원하는 내가 되는데 있어서 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일자: 2017 년 2 월 12 일

4:33 때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가 들린 한 사람이 와 있다가 큰소리로

4:34 "나자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4:35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자 마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4:36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정말 그 말씀은 신기하구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지 않는가!" 하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4:33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 demon, an evil spirit. He cried out at the top of his voice,

4:34 "Ha!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4:35 "Be quiet!" Jesus said sternly. "**Come out of him!**" Then the demon threw the man down before them all and came out without injuring him.

4:36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at is this teaching? With authority and power he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come out!"

한 마음 한 노래 (시)

아무래도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듯
나 자신만을 챙겼음을
다시 알았을 때 나는 참 외롭다.

많은 이유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곁을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비켜가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럽다.

(시, 이해인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가시나무

하덕규
made by musicday

B \flat E \flat B \flat F
 내속 엔— 내가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 네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B \flat
 엔— 헛된바램들— 로— 당신의 편할곳 없 네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엔— 내가어쩔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B \flat
 엔— 내가이길수 없는— 슬픔— 무성 한 가시나무숲— 같 네 바람만
 E \flat B \flat E \flat C F \sharp
 볼면— 그대마른가 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실곳을
 E \flat B \flat E \flat C F
 찾아— 지쳐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찢려날아가 고 바람만
 G \flat D \flat E \flat C F
 볼면 외롭고또괴로와 슬픈 노래를 부르던날이 많았는데 내속
 B \flat E \flat B \flat F B \flat
 엔— 내가너무도 많아— 서— 당신의 실곳 없 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바람을 맞으며
침묵하는 법과
사랑이 가득한 향기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늘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티없이 맑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비를 맞으며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눈을 맞으며
저에게 허락하신
작은 능력 안에서
세상을 하얗게 색칠하게 하소서!

별들을 보며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